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객체화된 신체의식(OBC)에 미치는 융합 연구

김동원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Fusion research i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leisure sports physically disabled persons on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OBC)

Dong-Won Kim

Department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A시에 거주하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독립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론으로는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별(남성), 연령별(40대, 50대), 장애등급별(4급)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신체 수치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체 감시성에서는 운동기간, 신체 수치함에서는 운동강도, 통제신념에서는 운동시간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지체장애인, 생활체육, 객체화된 신체의식, 신체활동,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articipation sport for how this affects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f the Physically Disabled. The subjects were enrolled in the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sport for the disabled, while 221 people living in the city A. Data processing was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the analysis of the specific factors independent t-test and the 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5. First, population, gender (male), age of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andicapped (40, 50), the objectification of the body consciousness level of the disability rating (Level 4) showed that a positive effect. Second, there are life sports participation rate (exercise duration, exercise time, exercise intensit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body shame of objectification of the body consciousness of the handicapped, the body monitoring Exercise Period, the body shame, the intensity of exercise, control beliefs this exercise showed that each time a positive impact.

• Key Words : Physical disabilities, Leisure sport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Physical activity, Fusion

*Corresponding Author : 김동원(dongwon@joongbu.ac.kr)

Received July 13, 2016

Revised August 1, 2016

Accepted October 20, 2016

Published October 31, 2016

1. 서론

지체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건강한 삶의 영위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1]. 이들에게 있어서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기능 향상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2,3,4]. 이러한 적극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건강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써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안정된 삶과 적극적인 삶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herrill[5]는 지체장애인들의 낮은 신체활동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는 곧 자기개념, 자아효능감, 자신감 등의 결여와 연결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성진[3]은 신체활동 참여를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통하여 손상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삶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신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기회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비장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아효능감 등의 회복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가져다주며, 이는 곧 사회통합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6].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의 참여는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신체와 결부된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객체화된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BC)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객체”는 다른 이들로부터의 시선이나 평가, 관찰하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불가능한 문화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하고 이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믿고 도달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의 요인이 있다[7]. 지체장애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감소는 결국 2차적인 신체적, 심리적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지속적인 움직임 가져옴으로써 낮은 신체적 기능의 수준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동시에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통한 심리적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어야 한다.

최근의 지체장애인과 생활체육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참여제약과 자립생활에 관한 연구[8,9,10], 자신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11,12], 운동정서와 심리적 복지감[13,14]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신체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대다수의 연구들이 운동을 통한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의 신체상 즉, 자신의 신체적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지체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의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신체 감시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신체 수치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통제신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A시에 거주하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편의 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이중기입과 기입누락 등의 부적합한 질문지 29부를 제외한 221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ratio(%)	total(%)
Gender	male	122	55.2	221(100)
	female	99	44.8	
Age	20's	37	16.7	221(100)
	30's	64	29.0	
	40's	73	33.0	
	50's over	47	21.3	
Disability rating	1 grade	45	20.4	221(100)
	2 grade	77	34.8	
	3 grade	53	24.0	
	4 grade over	46	20.8	
Exercise term	1year under	38	17.2	221(100)
	1~2year	40	18.1	
	2~3year	71	32.1	
	3~4year	37	16.7	
Exercise time	4year over	35	15.8	221(100)
	1hours under	44	19.9	
	1~2hours	73	33.0	
	2~3hours	58	26.2	
Exercise degree	3hours over	46	20.8	221(100)
	Not difficult at all	48	21.7	
	Some himdeum usually	51	23.1	
	Himdeum	55	24.9	
Exercise degree	Very himdeum	54	24.4	221(100)
		13	5.9	

2.2 조사도구

2.2.1 객체화된 신체 의식 질문지

객체화된 신체 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cKinley와 Hyde[7]가 개발하고 이를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15]가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끔 수정·보완하고 김정숙[16]이 제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신체 감시성(body surveillance), 신체 수치심(body shame), 통제신념(control belief)의 3가지 하위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 '전혀 아니다'의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2.2 검사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객체화된 신체 의식 질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분석결과 KMO의 값이 .679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 유의확률이 .000(p<.05)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0을 기준으로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의 3가지 하위요인 9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59~.87, 전체설명변량은 66.39%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신체 감시성 .83과 신체 수치심 .87 및 통제신념 .81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question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Control Beliefs
A1	.86	.21	.10
A2	.85	.14	.22
A3	.64	-.13	-.46
A4	.59	-.04	.10
B1	.19	.85	.05
B2	.04	.82	.21
B3	-.07	.69	-.26
C1	.01	.06	.87
C2	.35	-.09	.70
Eigen	2.37	1.97	1.63
Distribution	26.35	21.87	18.17
cumulative distribution%	26.35	48.22	66.39
Cronbach's α	.83	.87	.81

$\chi^2=77.949$, $df=36$, $p<.001$, $KMO=.679$

2.3 조사절차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A시의 B장애인체육회와 C장애인스포츠센터에 내방하는 지체장애인들로 질문지 작성에 따른 취지와 목적을 간략히 설명한 다음 질문지 작성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보조원(5명)은 질문지 작성이 불편한 상지 절단장애(손가락, 손, 팔)인과 척수 장애인들을 보조하였다. 이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2.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통한 신뢰도 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참여동기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해서 성별은 독립검증(Independent t-test), 연령과 장애등급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참여정도에 따른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간의 차이분석

지체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장애등급에 따른 참여동기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t검증(Independent t-test)과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Variance Analysis

Variables	Group	Mean ±SD	t			p
Gender	male (n=122)	3.15 ±.48	2.96			.043*
	female (n=99)	2.99 ±.38				
Variables	Group	Mean ±SD	df	F	p	Duncan
Age	(A) 20's (n=37)	2.96 ±.51	3	4.72	.003**	A<C,D
	(B) 30's (n=64)	2.98 ±.44				
	(C) 40's (n=73)	3.20 ±.48				
	(D)50's (n=47)	3.25 ±.49				
Disability rating	(A) 1grade (n=45)	3.19 ±.48	3	4.14	.007**	B<D
	(B) 2grade (n=77)	2.98 ±.43				
	(C) 3grade (n=53)	3.10 ±.53				
	(D) 4grade (n=46)	3.27 ±.41				

*p<.05, ***p<.001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96, p<.05$).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 남성 ($3.15\pm.48$)이 여성($2.99\pm.38$) 보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72, p<.01$).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 40대($3.20\pm.48$)와 50대 이상($3.01\pm.58$)가 20대($2.96\pm.51$), 30대($2.98\pm.44$)보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14, p<.01$).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 4급($3.27\pm.41$)이 1급($3.19\pm.48$), 2급($2.98\pm.43$), 3급($3.10\pm.53$)보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2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분석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들의 객체화된 신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하위요인(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에 따른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the participation rate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tion variable	B	SE	β	t	df	F
constant	Body surveillance	3.13	.13		23.16***	3	1.87
Exercise term		.12	.07	.14	3.08**		
Exercise time		.02	.03	.05	.81		
Exercise degree		.03	.03	.06	.94		
$R=.159, R^2=.025, \text{Adjusted } R^2=.012$							
constant	Body shame	3.58	.17		19.75***	3	2.86*
Exercise term		.12	.04	.12	1.57		
Exercise time		.01	.04	.04	.27		
Exercise degree		.08	.05	.18	2.41*		
$R=.201, R^2=.042, \text{Adjusted } R^2=.028$							
constant	Control Beliefs	3.25	.26		18.91***	3	2.06
Exercise term		.06	.30	.07	1.27		
Exercise time		.08	.05	.16	2.12*		
Exercise degree		.02	.05	.07	.98		
$R=.174, R^2=.031, \text{Adjusted } R^2=.019$							

*p<.05, *p<.01, ***p<.001

<Table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가 신체감시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1.87,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 값은 .025로 총 변량의 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하위요인인 운동기간($\beta=.14, p<.05$)는 신체감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시간과 운동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가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2.86,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

과 R^2 값은 .042으로 총 변량의 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하위요인인 운동강도($\beta=.18, p<.05$)는 신체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기간과 운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가 통제신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2.06,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 값은 .031으로 총 변량의 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하위요인인 운동시간($\beta=.16, p<.05$)은 통제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기간과 운동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4. 논의

이 연구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 의식에 관한 연구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참여정도가 객체화된 신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 첫째,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조규정[17]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형태에 따른 분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다고 제시하였으며, 김성진[3]의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자신감과 생활만족의 연구에서도 참여동기에 따른 성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여 이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운동참여의 기회가 많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내적욕구 해소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연령에 있어서 40대와 50대가 20대보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박수경, 김혜민, 이현수[18]의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신체통찰력 측정도구의 타

당성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김상두, 김동원[19]의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의 증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증가된다고 제시하여 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40대와 50대가 사회적으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할 시기이며, 사회 활동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대한 본인 스스로가 대처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등급에 있어서 2급보다 4급의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상두, 김동원[19]이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 연구에서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능력 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등급이 높을 경우 오히려 신체적 움직임의 부정확 등으로 인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로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반해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신체적 움직임의 보다 높은 자율성의 확보와 더불어 운동기능의 습득이 용이하여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을 분석할 결과 중 첫째, 참여정도에 따른 신체 감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동기간은 신체 감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감시성은 타인에 대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듯 바라보며, 신체는 통제의 대상으로 문화적 기준에 맞추려는 동시에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7]. 신체 감시성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동원[20]과 이영애, 김동원[21]의 중년 지체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객체화된 신체 의식과 운동지속수행에 관한 연구와 전병관, 김홍석, 이승아[22]와 김권일, 박병도, 이철환[23]의 연구에서 생활체육 참여는 외적인 모습에 대한 신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신체 감시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여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인들의 참여에 대한 지속성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신체활동을 통하여 낮은 자존감을 운동기능의 향상으로 자신감 등의 경험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참여정도에 따른 신체 감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동강도는 신체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수치심은 문화적 신체 표준을 내면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써 표준에 자신의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7]. 신체 수치심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병준[24]은 목표성향이 높을수록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신체활동이나 운동에 참가하려는 동기가 강하고 지속적인 행동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25]. 이러한 측면에서 운동강도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의 목표성향이 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운동능력 발휘를 통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의식의 감소를 가져온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참여정도에 따른 통제신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동시간은 통제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신념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7]. 통제신념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정숙[26]은 신체활동에 따른 통제신념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에 대한 표준화된 외모를 스스로 통제하여 내면화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의 지속성과 관련성이 있으며, 장건희, 조태수[27,28,29,30,31,32]는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내적동기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의 운동시간은 지속적인 운동수행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과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감 등의 강한 내적동기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별(남성), 연령별(40대, 50대), 장애등급별(4급)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수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는 객체화된 신체 의식의 신체 수치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체 감시성에서는 운동기간, 신체 수치심에서는 운동강도, 통제신념에서는 운동시간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객체화된 신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을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Y. A. Lee and H. C. Kim, "Application of Intensified Program to Increase Physical Fitness, Mobility, and Confidence on Specific Sports among Volleyball Sitting Athlet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3, No. 3, pp. 89-109, 2010.
- [2] D. W. Kim, "Fusion research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 in accordance with physical disabilities participate in swimming classes for 10 wee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159-165, 2016.
- [3] S. J. Kim, "An Effect of Long-Term Wheelchair Tennis on Physical Strength and Mental Health of

- the Physically Disabled”,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2, No. 4, pp. 215-228, 2009.
- [4] S. A. Lee, “An Effect of Long-Term Park Golf Exercise of the Aged with Physical Disabilities on Stress Hormon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4, No. 2, pp. 23-40, 2010.
- [5] C. Sherrill, “Adapted Physical activity, recreation and sport: Cross Disciplinary and lifespan(6th ed.)”, Boston, Massachusetts: McGraw-Hill. 2004.
- [6] J. Pyfer and D. Auxter, “Principles and Methods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New York, NY: McGraw-Hill Humanities. 2001.
- [7] N. M. McKinley and J. Hyde,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20, 191-215, 1996.
- [8] K. M. Koo and A. R. Oh, “Analysis on the Constraint Factors of Physical Disabilities in the Lifetime Sport”, *The Korea of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1, No. 4, pp. 447-454, 2012.
- [9] D. K. Kim, J. W. Park, H. S. Lee and S. M. Yun,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on Independent Living and Social Physique Anxiety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Korea of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5, No. 2, pp. 657-667, 2016.
- [10] K. I. Lee and S. H. Ryu, “An Anaysis of current Facilities for the Physically Disabled in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1, pp. 35-41. 2015.
- [11] J. T. Kim, “Relationship among the Level of Sport Participation, Lifestyle, and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Vol. 22, No. 4, pp. 101-115, 2014.
- [12] J. K. Baek, H. C. Cho and E. C. Seo, “Correlation between Exercise Flow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in Physically Disability Sports for All Participants -A Multiple Mediation Model of the Compensatory Behavioral Qualities and Dail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9, No. 4, pp. 183-204, 2015.
- [13] J. H. Park, J. W. Park and H. S. Lee, “The Influence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 on Social Inter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Korea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 23, No. 2, pp. 61-73, 2014.
- [14] J. K. Baek and H. J. Chun, “Causal Relationship of Positive Exercise Emotion, Health Sensitiveness, and Self-acceptance among Physical Disability Persons Participating in Sportsfor Al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20, No. 2, pp. 159-177, 2016.
- [15] W. S. Kim, Y. J. Ryu and E. A. Park, “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K-OBCS):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6, No. 2, pp. 329-349, 2007.
- [16] J. S. Kim, “Analysis of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Dancer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 26, pp. 51-63, 2009.
- [17] K. J. Cho,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Types of Sports for All,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Physically Handicapped People”,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Vol. 17, No. 3, pp. 213-232, 2009.
- [18] S. G. Park, H. M. Kim and H. S. Lee,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Measuring Instrument of the Body Insight: Focusing on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 Sport for All”,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6, No. 4, pp. 41-58, 2013.
- [19] S. D. Kim and D. W. Kim, “Disability due to the Resilience of life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athletic participation-verified”, *The Korea Journal of Sport*, Vol. 12, No. 4, pp. 319-329, 2014.
- [20] D. W. Kim, “Wheelchair tennis has ever fusion of classroom participation of the physically disabled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exercise emotional and exercise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3, 2015.
- [21] Y. A. Lee and D. W. Kim, “Effects of swimming program participation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nd exercise adherence in middle-aged women

- physically disabled”, The Korea of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4, No. 4, pp. 633-642, 2015.
- [22] B. K. Chun, H. S. Kim and S. A.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n sport participation motivation of sports for all”, The Korea Society of Sports Science, Vol. 15, No. 4, pp. 239-249, 2006.
- [23] K. I. Kim, B. D. Park and C. H. Lee, “Problems and Tasks for Policy in Component of Lifetime Sports of People with Disability”,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Vol. 12, No. 3, pp. 103-118, 2014.
- [24] J. K. Park, “Goal Orientation as a Predictor of Sources of Enjoyment and Stress in Youth Spor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12, No. 1, pp. 125-140, 2001.
- [25] Y. K. Kim and C. H. Seo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hysical Self-Concept Scale for the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y”,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Vol. 15, No. 3, pp. 27-50.
- [26] J. S. Kim, “Physical Self Efficacy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Physic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 53, No. 2, pp. 157-168, 2010.
- [27] K. H. Jang and T. S. Cho, “Research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 & External Motives of the Participant in Sports for All and Sports Commitment & Satisfaction with Spor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42, No. 2, pp. 1151-1162, 2010.
- [28] K. H. Yang and M. G. Jeong,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Family Type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Mater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 437-444, 2015.
- [29] S. H. Kim and K. U. Kim, “The Effect of Game and Mandala on the Attention of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525-533, 2015.
- [30] H. Y. Lee, “The Analysis of Pulse Wave Velocity of Jeju female div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515-521, 2015.
- [31] Y. G. Lee and S. H. Lee, “Convergence Educational Exploration of Anxiety about PE Class in Middle School Coed Class and Single-sex Cla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561-569, 2015.
- [32] Kyung-Mi Kim, Hyun-Young Kim, “The systemic contemplation of sadness mediation program applied to internal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391-400, 2015.

저자소개

김 동 원(Dong-Won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체육교육학사)
- 1999년 8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체육학 석사)
- 2009년 8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체육(특수체육, 장애인스포츠 등), 보조공학